

히브리 11장

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새번역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물질화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란 말에서 “증거”란 말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보지 못한다 할찌라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란 뜻입니다. 나는 그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할찌라도 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 합니다.

오늘 아침 지적인 바와 같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람으로 인한 결과를 봅니다. 우리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날라 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증거를 봅니다.

우리는 바람을느낄수도 있습니다. 우리는말하기를 “오 춤구나 싸늘한 바람이 몹시 불구나” 또 말하기를 “오 그것은 산타 아나 바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바람을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의 증거를 확신합니다.그리하여 우리가 바람을 보지못한다 할찌라도 우리는 바람이 존재 함을 믿습니다.

전자력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혀 큰적이없습니다. 내가 상반되는 양극을 함께 놓았을때 서로 끄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력과 전자계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결코 큰적이없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의 효과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한 증거를 봅니다.나는 그의 임재를 느끼며 그의 능력을 느낍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느끼며 그의 존재의 증거를 봅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결코 본적은 없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의 증거가 우리 주위를 온통 둘러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물질화하는 것입니다. 보지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구.

11: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지금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시작할때... 그것 들어가기 전에 천지창조 부터 시작합니다.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특히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때에 아주 흥미진진한 진술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물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또 말씀하기를 “땅은 씨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존재 하도록 명 하시때 우리가 보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 부터 창조 되었습니다.

베로써 실제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나 아니면 믿음의 증거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취하셔서 보이는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물질화 하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 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원자로 구성된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가 우리가 볼수 없는 원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타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환상적인 진술입니다.

지금 그는 구약성경으로 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기 시작 합니다.

그는 그들을 연대적 순위로 나열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로써 다윗과 사무엘 까지 나열하고 나서 그리고 연대적 순위를 역으로 나열하기도 합니다.

첫번 나타난 믿음의 위인은 아벨이었습니다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데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깨하여 증거 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른 말로 한다면 예를 들어 아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 하신 것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5부인 가인은 농부로서 그가 농사지은 땅에서 난 열매를 주님께 가져 왔습니다.
반면 아벨은 목동이로써 양을 제물로 가져 왔습니다.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때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의 제사는 거절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 지는 알수가 없으나
가인이 그의 제사가 거절 되었고 아벨의 제사가 수락 된것을 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거절 하시는데 대해서 성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의 제사가 거절됨에 대해서 왜 성을 내느냐?
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제사가 거절 되었으면 죄가 그문턱에 있지 않
았느냐?” 근본적으로 옳바르게 제사했다면 영접되었을 것인데 네 이마음이 옳바
르면 왜 거절했겠느냐?

기사실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은 땅에서 난 과실을 제사 했기때문이라 주장하는
자도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피의 제물이였기 때문이 라
고 암시합니다. 거절된 가인의 제사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일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거절 되었다고 암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로 구구합니다 마는 히브리 주석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거절
되고 다른 하나는 영접된 이유는 하나는 믿음 으로 제사 했고 다른하나는 믿음
없이 단지 사람의 손의 일로 제사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제사드리는 자들이 있고 자기의 행위로써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흥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설정 하실때에 하나님
께 열납되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사는 그들이 농사한 곡물을 가루로 빻아서 전병을 만들고 굽기도 하여 여호
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것입니다. 이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봉사의 성
결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소제라고 불리우는데 이제사는 아주 완전한 적법한 제
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제사와 같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품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가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 하실수
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죄문제를 해결하라고하십니다.

산상 보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하나님의 제단앞에 나올때에 다른
형제와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하고 그다음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마태 5:23-24)

많은 때에 사람들은 정도로 가지 않고 가로질러 가서 하나님과 사귀려 합니다.
먼저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나 사귀는 것기 전에 죄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죄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의
제사가 열납되지 못함은 네죄가 네 집문턱에 있느니라 네 죄문제를먼저 해결하고

라서 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열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로움의 증거였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증거하셨습니다.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증거 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 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있는 그룹천사들이 하나님의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선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4 장노들이 보좌앞에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의 면류관을 유리 바
가 위에 던지며 말하기를 “우리구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있었고 또 지
으신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4:11)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 목적은...당신의하나님의기쁨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습
니다. 자신의기쁨을위해서 사는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것 좀더 흥분되는 다른것들을 항상 끝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11:6상)

그래서 믿음의증거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로 부터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그의 제사가 열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며 옮기기전에
하나님을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기쁘시게
하였을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
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11:6하)

그래서 당신은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를
큰지런히 찾는자에게 상주시는자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의 예로서는 노아입니다.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은...바라는 것들의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노아 까지는 지구에
비가 내린적이 없었습니다. 땅은 저녁 마다 땅에서 올라 오는 안개로 적셨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가운데 두시고 물을 아래위로 나누셨기 때문에 땅에 수분이

가득하여 습도가 높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질학 발굴의 조사를 보면 그때 당시의 아스파라가스 같은 채소의 높이가 70내지 80피트까지 자란것을 볼수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900살 정도가되며 세포의 변이와 파괴를 일으키며 노화를 유발하는 우주로 부터 오는 방사선을 막는 수기층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고 초목과 나무가 크게 자랐으며 그들은 이전에 키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에 40주야 비를 내리 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곧 올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회롱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100년에 걸쳐 노아는 비를 결코 알지도 못한 지역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기로운 설교자...

!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과시금 십일장에서의 전체적인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은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믿음을 만들어 낼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대치 할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닮아 가는 생활이 없이 양심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에 믿는바를 닮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먼저 와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행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책망 하였습니다. 그는 의의 상속자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캐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한번에 한걸음씩 인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한번에 할것음씩 인도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 하신 다면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두걸음 세걸음 혹은 네걸음. 나는 하나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나에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전 계획을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원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집사에게 “사막지역인 가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이지역에서 아주 큰 부흥집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고작 그말씀 뿐이였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주께서 이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버리고 아무도 없는 사막지역인 가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가사로 갔습니다. 그다음 둘째 걸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하십니다. “어디 말씀 입

니까 ?” “가사로”라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한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땅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보시오 어디가십니까?” 누가물으면 모르겠소” 당신이 온가족을 이끌고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면 당신이 그곳에 도착했을때 어떻게알아요?”라고 물으면 “오 그분이 말해 주시겠지요”라고 말할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을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때에 순종하여 갈바를 알지 못하나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11: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여기 이땅에 왔을때에 그는 베엘 그땅의 중심 지역의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바라볼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보라 내가 너는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땅을 네게 주고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이것은 너의 것이니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땅을 두루 다녀 여행하였습니다. 헤브론으로 내려 갔다가 세겜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국 사람이였고 여행자에 불과 했습니다. 그는 천막에서 살았고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막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모든 땅이 자기의것임에도 외국사람으로써 그곳에 거했던 것입니다

11:10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 기니라

11: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큰 믿음을 가진 위인들에 대해서 읽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라의 장면이 나올때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먼저 그의 나이가 나옵니다. (90세이상) 이 나이에 이르기 까지 아이를 가져 본적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 출산기가 지난대도 불구하고 임신할 능력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신도 기억 하다시피 사라의 믿음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읽어 볼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범주에서 벗어난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인간적 성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의 경지에 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 하실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이스마일도 축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사라를 통하여 너의 아들을 낳으리라”(창17:18-21).

사라가 천막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도청하고 있었습니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네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을수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왜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대답하기를 “웃지 않았읍니다(창18;13-15).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 났을때 그이름을 웃는자 곧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는자란 뜻입니다. 사라가 노년에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너무도 믿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웃었던 것입니다.

!1:12 이 러 므 로 죽 은 자 와 방 불 한 한 사 람 으 로 말 미 암 아 하 늘 에 처 다 한 별 과 또 해 변 의 무 수 한 모 래 와 같 이 많 이 생 육 하 였 느 니 카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태어 났읍니다.

!1:13 이 사 람 들 은 다 믿 음 을 따 라 죽 었 으 며

삼간만!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까?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충분한 믿음을 가지면 결코 아프지도 않고 충분한 믿음을 가지면 무슨 차던지 가질수 있고 무슨 집이든지 소유할수 있지 않습니까?” 기사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믿음의 멧세지” 가 아직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았 습니다.

!1:13 이 사 람 들 은 다 믿 음 을 따 라 죽 었 으 며 약 속 을 받 지 못 하 였 으 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약 속 을 받 지 못 하 였 으 되 그 것 들 을 멀 리 서 보 고 환 영 하 며 또 땅 께 서 는 외 국 인 과 나 그 네 로 라 증 거 하 였 으 니 (11;13하)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적절한 태도를 가졌고 삶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땅에서는 다만 외국인ियो 순례자에 불가 합니다. 나는 천막에 사는 것으로 만족 합니다. 이것은 나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약속이 주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시고 지으신 집이 있는 그도시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고백하기를 “여기는 내가살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곳을 지나 갈따름이다. 나는 이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자이다. 나는 차늘나라에 속하며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진리를 잘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간직하고 있으므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지 행인ियो 순례 사에 불가 합니다.

!1:14 이 같 이 말 하 는 자 들 은 본 향 찾 는 것 을 나 타 냄 이 라

11:15 저희가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하란에 도착했을때 돌아서 바벨론으로 다시 갈수도 있었습니다. 항상 리돌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여행길을 계속했습니다.

11: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셨다. 이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 수궁이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부끄러워 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때가 있었을가 두렵습니다. 사람의 예로 “오 저사람이 하나님의 종 목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위치가 부끄러운 것이 될가 두렵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바쳐드리는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좋은 깨달음을 보여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할때에 말하기를 “고전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5:2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 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5:4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2-4)

여기서 저자는 물론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범죄자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시편22장14절에 보면 “나는 죽음으로 물같이 쏟아졌으며” 우리는 성경이 그가 장사되며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하였다는 예언한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에 그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언이 있는가? 요나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12:40)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어느곳에 사흘후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여기 있나이다” 창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 제로 드리라

광은 세상 사람들은 이부분을 꼬집어서 성경과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길레 한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 하였는가?”

그들은 다만 이사건의 이야기를 저주스런 측면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돈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요구 하셨는가 비웃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독자를 취하여” 하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삭만이 그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는 이삭보다 13세살이나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때는 네씨로 불리우는 이삭을 통해서”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일을 인정치 않았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 인정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그림책을 통해서 이삭이 8세에서 10세에 이르는 소년인것으로 상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8세된 아브라함이 8세된 소년을 이끌고 모리아 산에가서 하나님께 제사를드리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끼는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느냐?

기때는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5세 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이끌려 가는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쯤의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0대 후반이 었을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도 125세 쯤된 것으로 짐작 됩니다.

이삭은 그의 젊음의 첨단에 이른 나이 이기때문에 그의 늙은 아버지를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만 하시지요 뭇하십니까?”라고 할수 있었으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진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삼일간 헤브론으로 부터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흘동안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의 아들은 이미 자기에게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는 장소에서 그에게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일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올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라는 말을 계속해서 일부러 반복하는 형태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움직임 그리고 계속해서 고의적인 행동의 어법이 있습니다.

나와 아이는 (will go)가서 (will worship) 하나님을 경배하고(will come again) 다시 돌아 올것이다. 그는 이삭이 나와 함께 다시돌아 올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네자손이 태어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직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이삭이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네 자식이 태어나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릴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삭이 너의 씨라 불리우리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다. 죽은자를 살리시는 일 아니면 무엇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이 아이는 다시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지금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말하기를 “아버지 여기 나무와 풀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아들아 주께서 자신을 제물로 준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창22:7-8)
흥미있는 예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리아 산에 왔을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 제단위에 놓았습니다 칼을 들어 죽이려 할때에 하나님께서 중지시켰습니다.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22:11 여호와 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처기 있나이다' 하매
22: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취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삭은 삼일 밤낮 동안 죽은것 같이 예수께서도 그의 부활전에 삼일삼야를 음부에서 지나셨습니다.
흥미있는 일입니다. 우연의 일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며 2000년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세상과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만일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주석이 없었더라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요구에 혼돈할뻔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험을 기쁨으로 감수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 하다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수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나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도 살릴수있는 능력이 있음을 생각할때 “그때부터 그를 한 특별한 인물로 받아 드립니다” 다시말해서 그는 불가능한 아이 였습니다. 그의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그의 출생도 자연 출산의 가능성을 훨씬 넘는 경우입니다. 그는 죽은 자로 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출생케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때까지 기적으로 유지해오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1: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1: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것을 갈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가족의 족보를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믿음으로 두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일에 대해서 예언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 곧 요셉의 두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큰권능과 능력을 가졌으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할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애굽이 영원히 거할곳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때에 애굽에서 나의 뼈를 가지고 그땅으로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자기들의 땅이 될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후 약 300년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때에 요셉의 마미(시체)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서 그땅에서 장사를 지냈읍니다.

!1:23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제 몇백년 전으로 앞당겨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수가 중다하여

개굽 나라에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급속히 번식하여 그수가 애굽인들 보다 많아지고 강하게 됨으로
개굽인들을 능가하여 미래에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가능성을 미리
고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히브리인들의 남자영아 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르세가 태어났을때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그를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불순종
했습니다. 부모들이 볼때에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한 왕의 명령을 두려
워하지 않았습다

11: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을 거절하고

기때에 모세의 나이가 약 40세가량 되었습니다
르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으며 애굽의 학교에서 모든 학문과 과학을 통달한
사람이었으며 바로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 왕이 될수있는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포기 했습니다.

11: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을 거절하고

11:25 도리어 하나님을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르세는 아주 흥미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써 평생을 죄악 가운데서 잠간 즐길수있는 기회
가 있었습니다. 그는 120년인 란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 3700년이 지난 기간 을
생각하면 아주 짧은 기간 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 를 잠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죄악의낙을 누리는 것이 오래가지 않음
을 깨달았습니다.

강신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보십시오 육신적인 쾌락이나 흥분이 있긴 하지만
오래가지 않고 실증이 곧 나는 것입니다.

르세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11: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편으로는 바로의 딸로써 왕궁의 모든 영화와 애굽의 모든 부를 분토와 같이
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차탈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점이 있고 또한 영원하
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간 있는 현재보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선택에 있어 서 영원한 것을
취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가시적이고 일시적으로 흥분적인
기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길의 마지막이 어디로 인도되는 것을 볼수있고
찾아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르세는 믿음으로 이세상의 일시적인 안일 과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선택 하였으며 또한 애굽의 보화보다 더큰 부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11:26)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대한 영원한 상을 바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한 상주심이 육신을 쫓아 일시적인 향락을 누림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견인의 비결은 하나님을 볼수있고 그의 역사를 볼수있고 그의 손을 볼수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역경중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을 볼수있고 내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을때에 내가 견딜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질때에 나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라고 질문하기 시작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깨닫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볼수있을때에 나는 견딜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다” 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수있을때 견딜수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믿을때에 하나님을 볼수있습니다.

11: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자로 저희를 건드리지않게 하려한 것이며

애굽인들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이밤에 애굽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손 것을 다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년된 양을 잡아 취하여 죽이고 그피를 그릇에 담아 피를 우슬초로 짖어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뿌리 다 보면 십자가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밤 그땅을 칠때에 그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내가 그피를 볼때에 그집을 지나가며 장자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집을 위하여 희생된 양은 장자를 보존 하기위한 대속의 양입니다. 장자 대신에 어린양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대속의 죽음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죽을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대신 대속의 죽음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1: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자로 저희를 건드리지않게 하려한 것이며

11:29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기리 앞당겨 본다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11:30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시에 라합이라 이름하는 한여인이 살았습니다 이여인의 집에 여호수가 큰넨 스파이가 들어 왔을때에 그들을 쫓는 여리고 사람으로 부터 숨겨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11: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손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자는 말하기를

11: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밋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 하였는데 이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로 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스라엘의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 갑니다.(11:32)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고 단지 그의 이름만 명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사무엘(11:32)

제가 말했듯이 이곳만이 년대적으로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니다.

사무엘이 다윗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연대적 나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저자는 아마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현출 한 삶을 살았던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기록 하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무슨일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33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11: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11: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 하였으며(11:33-35)

이것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첫번 부분입니다. 첫부분은 아주 강하고 그들의 믿음에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결하기도 하며 연약한자가 강하게도 되며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사람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패배도 맞보고 용기도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고침을 받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고급차인 마즈라티를 타며 결코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속 나열한 말씀을 읽어보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믿음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원수를 대적할때 승리 합니다. 이방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들을 항상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나를 여기서 꼭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입니다.

이것은 나열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첫번 부분만을믿고 둘째부분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악형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구들은 악형을 당했습니다

기러한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였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악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주의 부활보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더 좋게 여겨 악형을 구차히 면하려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생명의 더좋은 부활을 얻고져 했던 것입니다.

!1:36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1: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는 놀라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의 계시를 심히 즐겼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이사야의 몸을 톱으로 두토막으로 잘랐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통찰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1: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1: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기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기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감당한
일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적군에 대한 승리를 항상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믿음은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긴급한 일이라 할찌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러한 인내를 가지며 견디는 질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물리치고 승리의 최첨단에 이르게하는 믿음도 좋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렵고 괴로운 시험을 당할때 에 인내 할수있는 믿음을 갖는데 도
역시 흥미가 있습니다

11:38 (이 런 사 람 은 세 상 이 감 당 치 못 하 도 다) 저 희 가 광 야 와 산
중 과 암 혈 과 토 굴 에 유 리 하 였 느 니

11:39 이 사 람 들 이 다 믿 음 으 로 말 미 암 아 증 거 를 받 았 으 나 약 속
을 받 지 못 하 였 으 니

기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긴음으로 죽었습니다

1:40 이 는 하 나 님 이 우 리 를 위 하 여 더 좋 은 것 을 예 비 하 셨 은 즉
우 리 가 아 니 면 저 희 로 온 전 함 을 이 루 지 못 하 게 하 려 하 심 이 니
까

그들은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길을 주실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쳐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이사야53:6)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주실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죽었을때 하나님의 왕국이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희생을 드린것은 어떤날 하나님께서 그의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실것을 믿음으로 바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생제사로서는 죄를없이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완전한 희생을
지적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때는 그들은 하나님 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약속이성취 될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16

6:19

6:20

6:21

6:22

